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녹) 연중 제2주일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2024년 1월 생활말씀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루카 10.27).”

(녹) 연중 제2주일 ( 24. 1. 14. )

연중 제2주일인 오늘의 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증언하는 장면을 전해 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이 미사에 참여합니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 사무엘기 상권 3,3ㄴ-10.19 ):

그 무렵 3 사무엘이 하느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4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 하고 대답하고는,

5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6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7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8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9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10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9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 제2독서( 사도바오로의 코린토1서 6,13ㄷ-15ㄱ.17-20 ):

형제 여러분,

13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14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15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17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18 불륜을 멀리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19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20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 복음( 요한복음 1,35-42 ):

그때에 35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36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다.”

37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38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라삐,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삐’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3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네 시쯤이었다.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41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42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  
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 미사 전례

###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이 시대에 하느님의 평화를 주소서.

### 화답송

-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치의 근원이신 주님,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지켜 주시어, 그리스도인들이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의 풍요로움을 보여 주게 하소서.
2.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 민족을 굽어살피시어, 지난 세월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한 민족으로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3.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총의 주님, 갖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을 살피 주시어, 몸소 위로하시고,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안정과 평온을 찾고 치유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4.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교회와 사회의 중심인 가정을 굽어보시어, 가족 모두가 서로 온전히 이해하고 화목하며 생명과 사랑의 보금자리를 이루게 하소서.

###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저희가 천상 양식을 함께 나누고 비오니  
사랑의 성령을 부어 주시어  
그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게 하소서.

### ♪ 성가 ♪

- 입당 : 9 (우리 모두 함께 모여)
- 봉헌 : 512 (주여 우리는 지금)
- 성체 : 172 (그리스도의 영혼), 188(천사의 양식)
- 파견 : 6 (찬미노래 부르며)

## 공지 사항

- ♣ 주님 봉헌 축일 초 축복 예식  
‘주님 봉헌 축일’(2월 2일)을 맞이하여 1년 동안 제대(전례)와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축복합니다.  
• 초 축복 예식: 1/28(주일)  
• 신청 : 제대초 봉헌, 또는 개인초  
• 제대초: 15유로(사이즈 이전과 동일)  
• 개인용: 10유로(제대용 사이즈의 1/2)  
• 신청 마감 및 입금 : 1/21(주일)  
• 각 구역별로 1월 21일까지 접수 및 비용 취합하여 변의용 베네딕도 부회장님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밀라노 총영사관 김기현 영사님께서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관련 설명차 저희 본당을 방문해주셨습니다.
- ♣ 모임/회의  
- 사목회의: 오늘(14일), 미사 후  
- 청년성서모임: 다음 주(21일), 미사 후 사제관

### ♣ 봉사자

	이번 주일(14일)	다음 주일(21일)
제1독서	엄기용 안토니오	정상현 안토니오
제2독서	장세란 세실리아	우윤정 마리아
복사	엄채윤 엘리사벳 김사빈 엠마	박동현 요한보스코 이가은 마리아판체아
계단·화장실	엄기용 안토니오	정상현 안토니오

###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365.40 • 교무금 € 2100.00